

# HIS on Media

## 고성능 스케일아웃 파일 스토리지 HCSF 출시

HPC(고성능 컴퓨팅), AI(인공지능)/ML(머신러닝) 분석, GPU 가속화 등 고성능 워크로드를 위해 최적화된 스케일아웃 파일 스토리지 'HCSF(Hitachi Content Software for File)'가 최근 출시되었다.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HPC 및 AI/ML 활용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더 많은 모델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고성능은 물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이 요구된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출시한 HCSF는 확장성이 뛰어나고 배포, 구성, 관리가 쉬운 초고성능 병렬 파일시스템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이다. 업계에서 가장 빠른 고성능 병렬 파일시스템과 최고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HCP(Hitachi Content Platform)의 통합 구성을 통해, 모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사전 설치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된다.

HCSF는 데이터 수집, 준비, 모델 학습, 추론, 스테이징/아카이브, 데이터 관리 등

AI/ML 워크플로우 각 단계의 필요한 인프라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일 통합 솔루션으로 인프라의 사일로(silo), 복잡성, 비용 발생, 관리 이슈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메타 데이터 기반의 강력한 데이터 관리 자동화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환경에도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처럼 HCSF는 고성능, 스케일아웃 단일 파일시스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통합 구성이라는 차별성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고성능 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HPC 분야 전용의 높은 요구 성능과 비용 효율적인 저장공간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금융 서비스, 생명과학, AI/ML, 데이터 분석,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공정시스템 등 고성능과 대규모 볼륨이 필요한 업무 시스템에서 고객의 데이터 혁신을 지원한다.

## 국내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 7년 연속 선두

한국 IDC의 '2020년 4분기 외장형 스토리지 시스템 시장 조사자료'에서 히타치 밴타라(Hitachi Vantara)가 2020년 전체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42.4%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7년 연속 국내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 1위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에 따라 유연하고 민첩한 IT 인프라 운영을 위한 스토리지의 고용량, 지능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언택트 및 비대면 서비스 대중화를 위한 대형 기업들의 스토리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은 이례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VSP(Virtual Storage Platform) 시리즈를 통해 국내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주도 공공사업과 주요 은행 증설, 제2금융권 차세대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 등을 잇달아 수주하며 큰 성과를 올렸다.

'VSP 5000'은 민첩성, 자동화, 복원력을 한 번에 실현시킬 수 있는 하이엔드 스토리지 제품이다. VSP 5000은 새로운 가속화 패브릭이 적용된 세계에서 가장 빠른 NVMe 플래시 어레이로 70 $\mu$ s의 빠른 응답 성능, 100% 데이터 가용성, 업계 최고의 서비스 가용성(99.999999%) 보장 등 기업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한다.

하이엔드 스토리지는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주로 활용되며, 고객들은 중단 없는